

■ 그림 여행



우유 따르는 하녀

(Het Melkmeisje c. 1658)

요하네스 베르메르 (Johannes Vermeer 1632-1675)

(캔버스에 유채 45.5cm x 41 cm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항상 새롭고 경이롭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 선명한 색상, 그리고 정확한 원근법에 의거한 안정적인 구도까지 그의 그림은 언제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대표 전시물 중에 하나인 이 그림은 거의 네덜란드 국보급 작품이라고 한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이 그림을 미국인 수집가가

사들여 미국으로 가지고 가려 했을 때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어 결국 네덜란드 정부가 그림을 사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얼마나 네덜란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림인지 알 수 있는 일화이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성실하고 검소하다.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개발해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한 부국으로 발전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성도 그에 따라 실용성과 근면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해 갔을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 그림 속에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어느 집 주방에서 하녀가 먹다 남은 빵을 가지고 푸딩을 만드는 장면이다. 하녀는 빵 조각을 그릇에 넣고 조심스레 우유를 붓고 있다. 어깨가 둥글고 허리가 튼실한 하녀는 매일 반복하는 일이지만 또 정성을 다해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시간이 창문으로 비쳐 드는 환한 빛 속에 파란색과 황금색의 조화와 함께 포착되었다. 일상의 한 모습이 그림 속 영원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다.

매일 지루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 슬며시 불평이 생길 때 이 그림을 보면 정신을 차리게 된다. 성실하게 그려낸 그림 속에서 일상의 생활이 새로운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매 순간이 차곡차곡 쌓여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다시금 스스로를 다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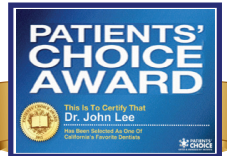
수수한 얼굴을 반쯤 숙이고 입술을 꼭 다문 채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이 하녀의 모습이 화려한 치장을 한 귀족 여성의 초상화보다 훨씬 아름답고 숭고하게 느껴진다.

《김동백》

www.fullertonsmile.com

A' DENTISTRY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 틀니전문
-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자체 랩보유
- 임플란트 틀니



John S. Lee, D.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S.
Tuff Dental School, D.M.D.

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30년 경력의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운영

Felona Knit 페로나 니트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옷

연말 창고 대방출 세일!!!

(1/31/2020 까지)

처음하는 세일 딱 한달만

up to 50%



정장, 캐주얼, 결혼예복, 연말연시 각종 파티복

714.614.0970

2009 W. Commonwealth Ave. #E, Fullerton, CA 92833